

제목: 백신을 믿어도 되는 것인가?

안녕하세요 저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예방하기위해 백신을 맞는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하여 글을 써보려 합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혼란에 빠트렸습니다.

약 3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코로나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무증상 환자가 많은 상황 속에서 별다른 증상 없이 지나갈 수 있기에 현재 위험합니다.

사회활동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새 감염자가 되어 가족, 지인등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평균 7일에서 최대 14일의 잠복기를 지나 발병되고 있습니다

감기 와도 같은 비슷한 증상을 가진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감기보다 약 몇 십배는 더 감염 속도가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발열, 기침, 구토, 근육통 등의 증상들이 나타났으며 후유증으로 피로감과 심하게는 후각과 미각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확진자 48% 시민들이 겪었다고 진술했으며 어떠한 바이러스보다 후유증이 심하다고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호흡기 세포를 집중 공격하게 되는데 이는 폐를 심하게 손상시키게 됩니다. 이 과정 속 정상 폐포와 폐조직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섬유 조직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결국 탄성을 잃고 딱딱하게 변하게 됩니다. 이런 폐는 정상 부분도 기체 교환이 힘들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사라진 후에도 생존이 매우 어렵습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일어나 폐섬유화가 진행되면 바이러스 유무와 관계 없이 이로 인해 사망하게 됩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죽은 사망자들의 특징을 보면 특히나 폐와 관련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고령환자나 폐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사망률이 높은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증환자로 취급을 할 때 폐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나 면역력이 낮은 고령층 시민들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게 됩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예방하기위해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만드는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의 백신이 사용되고 있는 지금 세계적으로 완전 접종률이 42.68%로 거의 세계인의 반 이상이 백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백신은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번째로 백신의 임상실험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백신들을 수많은 시간과 임상실험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임상실험은 하지만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급격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실한 임상실험을 한 백신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까지 가장 효과가 좋다고 나와있는 화이자 백신의 임상실험 과정 속 영국의 의학회지인 The BMJ (BMJ journals) 는 화이자 임상실험을 진행했던 전직1명과 현직2 명의 제보자의 말을 인용해, "화이자 백신이 엄격한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았고, 예방효과는 과장되었으며, 중증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되지 않은 백신" 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의 부실한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대한백신학회 관계자는 "일부 규정위반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백신의 예방효과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인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규정위반이 있음에도 그 즉시 접종을 중단해야 하는 것과 달리 국가는 이를 무시한 채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게 하였습니다.

각국 정부의 무책임한 권유로 인해 이미 국민의 대다수가 화이자 백신을 받은 상태에서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을 위험에 빠트릴 수도 있는 의료사고가 일어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신의 임상실험이 충분히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히 접종을 해야한다는 것과 달리 대부분의 언론과 국가 자체에서 위험성 보다는 효과에 집중하여 이를 보도하였고 국민들은 부실한 임상실험을 거친 백신을 맞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백신으로 인한 사망률입니다. 이는 백신의 임상실험 결과가 엉터리였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맞은 건강했던 사람들이 돌연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은 50대 여성이 2주만에 죽고 20대 남성이 갑자기 돌연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도 국가는 이는 백신과 전혀 연관이 없는 사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뇌정맥동혈전증 등의 문제가 갑자기 발생하고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국가의 말을 수용할 수 없다. 사망률 또한 점차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는 접종률이 증가하는 과정과 더불어 백신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 맞은 백신이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화이자 약 95%, 모더나 약 94.1%, 아스트라제네카 약 70.4%의 예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에 별로 효과가 없다는 이 같은 결과는 CDC 연구진이 독립기념일 연휴가 포함된 이달 3~17일 사이에 매사추세츠주 바스테이블카운티에서 열린 각종 행사와 관련돼 코로나19에 걸린 주민 469명을 분석한 자료에서 나온 것으로 워싱턴포스트는 "백신 접종자가 전염력이 높은 변이를 확산시켜 최근 재확산을 일으켰을 수 있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핵심증거"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2차까지 접종받은 사람들 중에 이른바 '돌파감염'에 걸린 사람 가운데 279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백신접종을 완료한 346명 중에서 5분의 4 에 이르는 수치로 상식적으로 백신의 효과는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언론과 각 전문가들이 주장한 감염률을 낮추고 델타변이에도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이 결과를 토대로 효과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보았을 때 백신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전혀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백신을 과도하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을 통제하여 사람들을 강제로 백신을 맞게 하였으며 백신으로 사망한 숫자보다 예방률만을 높게 결과를 나타내어 국민들을 속이고 부작용에 관해서는 전혀 나타내지 않았다. 돌파감염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백신의 효과가 있다고만 주장할 뿐 근거를 이야기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국가는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국민에게 강요해선 안되며 국가가 만든 백신패스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